

# 11월 취업자 반년째 둔화... 청년층 21개월 만에 감소 전환

**통계청 '2022년 11월 고용동향' 발표**  
같은 달 기준 23년 만에 증가 폭 최대  
숙박음식점업, 통계작성 이래 최대 ↑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지난해 11월(55만3000명) 이후 1년 만에 가장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는 지난 5월 이후 6개월 연속 둔화하는 등 올해 하반기 들어 고용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이다.

증가한 일자리의 76%는 고령층인 반면 경제 허리층인 40대 취업자는 감소세가 지속됐으며 청년층도 취업자가 내림세로 전환됐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제조업 취업자 증가는 둔화하고 운수·창고업과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는 감소하는 등 산업별 명암도 엇갈렸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2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2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62만6000명(2.3%)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1999년 11월

(121만7000명) 이후 23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기저 효과로 올해 1월(113만5000명), 2월(103만7000명) 100만명 이상의 증가 폭을 기록했다. 3월(83만1000명)에는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했다가 4월(86만5000명), 5월(93만5000명) 확대됐다. 6월(84만1000명)부터는 증가 폭이 줄기 시작해 7월(82만6000명), 8월(80만7000명), 9월(70만7000명), 10월(67만7000명)에 이어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10만1000명(2.3%) 늘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 폭은 전월(20만1000명)보다 둔화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23만1000명(11.2%) 늘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증가 폭도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대면 활동에서 코로나19 영향이 많이 사라지면서 취업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9000명·5.5%) 등에서도 늘었으나 도매 및 소매업(-7만8000명·-2.3%), 운수 및 창고업(-1만2000명·-0.7%) 등에서는 뒷걸음질했다. 금융 및 보험업(-2만7000명·-3.4%)도 12개월 연속 내림세를 지속했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4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기간 감소세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47만9000명 증가했다. 증가한 일자리 62만6000명 중 고령층 일자리가 76.5%나 차지했다. 50대 9만2000명, 30대 6만6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40대에서 6000명, 20대 4000명 감소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5000명 조그라 들었다. 2021년 2월(-14만2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1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됐다.

종사자별 지위를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67만8000명(4.5%)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8만3000명

(-1.7%), 8만4000명(-6.8%) 감소했다. 특히 일용근로자는 지난해 5월부터 19개월 연속 내림세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2만9000명(3.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만7000명(2.0%) 각각 증가했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1000명(-4.1%) 감소했다.

취업 시간대를 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59만3000명으로 26만8000명(1.3%) 증가했고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43만1000명으로 31만3000명(5.1%)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2.7%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5%p 오른 69.0%로 집계됐다. 이 또한 통계가 작성된 1989년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달 실업자는 66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8000명(-9.3%) 감소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02년(66만3000명) 이후

20년 만에 가장 적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3%로 1년 전보다 0.3%p 하락했다. 실업률은 1999년 6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동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청년층 실업자는 전년보다 1만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5.7%로 0.2%p 올랐다. 동월 기준으로 2020년(8.1%)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조사 기간에 지방직 7급 공채 시험 등 공무원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 취업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청년층 실업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2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만2000명(-2.5%) 감소하며 21개월째 내림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고용동향과 관련해 "기저 영향이 확대 작용하는 가운데 고물가, 금리인상, 수출 부진 등 하방요인이 상존한다"면서 "2023년 취업자 증가 폭은 기저효과, 경기 둔화, 인구 영향 등으로 올해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이래적 호조세에서 내년 장기추세로 복귀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최이슬기자

## 겨울 대표 간식 '붕어빵' 가격 5년 전보다 2배 올랐다

일부 지역선 1마리 1000원...재료값 평균 49.2% ↑



겨울철 대표 간식인 '붕어빵' 가격이 5년 전보다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최근 붕어빵 가격은 2마리에 1000원으로 올랐다. 지역에 따라 1마리에 1000원인 곳도 있었다. 5년 전만 해도 붕어빵 4~5마리 가격이 1000원선에 형성

돼 있던 것과 비교하면 100% 가량 뛰었다.

이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뛰어들어 탓이다. 한국물가정보에 붕어빵, 호떡 등 겨울 간식거리 5개에 들어가는 주재료 가격을 분석한 결과 5년 전보다 평균 49.2%, 지난해보다는 18.4%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붕어빵 주재료인 '팥'(수입산) 가격은 5년 전보다 약 100%가 올랐다. 2017년 3000원(800g 기준)이었던 팥 가격은 올해 6000원으로 뛰었다.

같은 기간 1kg 기준 밀가루가 1280원에서 1880원으로 46.9% 올랐고, 설탕은 1630원에서 1980원으로 21.5% 상승했다. 식용유와 LPG 가스 가격도 각각 33.2%, 27.4% 올랐다.

원·달러 환율 문제와 올해 초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작년년부터 기상 악재로 인해 세계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한 것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물류 차질 등에 따른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쳤다.

한국물가정보는 "실제 반죽에 쓰이는 재료 량이나 품목별 추가 재료를 고려하면 상승 폭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며 "우리나라는 곡물을 원재료로 삼는 밀가루나 팥, 식용유뿐 아니라 가스나 설탕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재환기자



## 레이디가구 '호텔형 수납침대 2중' 출시

레이디가구는 침대 2중 '모닝 템파보드'와 '우디화이트' 호텔 수납침대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호텔형 침대로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컬러와 디자인을 제외한 다른 사양은 모두 동일하다. 모닝 템파보드 호텔형 수납침대는 화이트와 핑크베이지, 우디화이트 호텔형 수납침대는 화이트 컬러로 출시됐다.

두 제품은 동일한 강점과 사양을 가졌다. 핀조명이 있어 취침 전 침대에 앉아 독서를 하거나 영화를 볼 때 호텔룸과 같은 분위기 연출이 가능하다. 각도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다. 보드에는 멀티탭이 있다. 스마트폰을 충전하거나

가습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별도의 멀티탭이 필요하지 않다.

머리맡 수납공간은 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에 있다. 인테리어 소품, 책, 핸드폰 등을 올려 두기에 편리하다. 수납공간도 넉넉하다. 21cm 높이의 침대 하부 박스랍은 5단 서랍장의 수납력과 비슷하다. 7cm 깊이의 풋보드는 침대 매트리스를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

슈퍼싱글·퀵 사이즈로 출시됐다. 레이디가구 온라인 공식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오늘의 집을 비롯한 종합몰 등에서 만날 수 있다. 판교와 마포에 있는 레이디가구 쇼룸에서 제품을 직접 보고 체험도 가능하다.

뉴스스

## 얼어붙은 벤처투자, 전년比 40% ↓ ...내년도 어렵다

대한상의 '벤처 자금조달 여건 점검·대응방안' 보고서

정부지원금 축소, 긴축적 통화정책 등으로 벤처기업의 자금난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역시 자금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SGI는 14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평가하고 향후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점검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벤처기업은 정부지원금과 은행대출에 대한 자금 의존도가 높다. 벤처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벤처기업의 신규자금 중 64.1%는 정책지원금으로, 28.2%는 은행대출을 통해 조달됐다.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자금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벤처캐피탈의 투자재원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 중 정책금융의 비중이 29.5%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지원금 축소, 긴축적 통화정책 등으로 벤처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내년 정부의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이 각각 19.6%와 39.7% 감소하며 자금 지원 규모가 2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시장 유동성도 축소되고 있다. 은행의 보수적인 대출 성향이 강화되고, 높아진 시중금리에 따라 벤처자금 시장의 주요 투자자인 금융기관이 예금, 회사채 등으로 자금투자를 전환할 것이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은 외부자금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 수요 상태인 경우가 많아 자금공급이 줄어들

면 벤처기업의 자금난은 빠른 속도로 어려워지게 된다. 실제 올 3분기 벤처캐피탈투자는 경기불확실성과 고금리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0.1%나 감소했다.

이에 SGI는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경기연형적 운영 ▲벤처기업에 대한 무담보 대출 공급 확대 ▲CVC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김경훈 연구위원은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경제환경 악화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며, 벤처기업이 자금난으로 성장성이 제약되면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벤처 투자자금을 활성화해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 롯데제과, 슬지제빵소와 협업 옛날식 '삼거리호빵' 출시



롯데제과는 겨울 호빵 성수기를 앞두고 전북 부안에 위치한 전빵 맛집 '슬지제빵소'와 협업해 개발한 옛날식 호빵인 '삼거리호빵'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호빵은 슬지제빵소의 노하우를 담아 우리밀과 전분을 사용해 식감이 쫄깃하다. 내용물은 당도를 낮추고, 팥 함유량을 약 3배 늘려 팔호빵의 담백함을 강조했다.

롯데제과는 또 CU 편의점에서 버터의 풍미와 저당통팔양공을 사용한 냉장유통 '소금버터호빵'을 출시했다.

이에 더해 50년 전통 빵 전문 브랜드인 '기

린'을 앞세운 기린호빵 4종(팥, 아재, 피자, 옥수수)도 선보였다.

다수의 발효 특허기술을 개발해 온 기린은 수년 전부터 빵과 호빵에 유산균 발효액을 사용했다. 이번엔 출시된 호빵 시리즈에도 자체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한 '발효빵 맞춤 특허 유산균'으로 만든 유산균 발효액을 사용했다.

오유나기자

## LG전자, 빌트인 최대 용량 721L 냉장고 공개



LG전자는 내년 1월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에서 대용량 빌트인 타입 냉장고 신제품을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신제품은 빌트인 타입 냉장고 가운데 업계 최대인 721L 용량이다. 빌트인 타입 냉장고 용량이 700L를 넘는 것은 이 제품이 처음이며 LG전자는 이번 신제품을 내년 4월 미국에 먼저 출시한다.

LG전자는 냉장고 외관 크기를 기존 제품(모델명 LRFVC2406S)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식품 보관 용량을 10%가량 키웠다.

내부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냉기가 지

나가는 길을 재설계하고 열을 흡수하는 증발기 등 냉장고 핵심부품의 구조도 개선했다.

LG전자는 신제품에 새로운 타입의 얼음을 만들 수 있는 미니 큐브드(Mini cubed) 기능을 추가했다. 기존의 크래프트 아이스 등 4가지 종류의 얼음 가운데 선택해서 사용 가능하다.

오른쪽 상단 도어에는 거울로도 사용할 수 있는 미러 글라스 디자인에 LG전자 냉장고만의 차별화된 '노크온' 기능을 탑재했다. 문을 두드리면 안쪽 조명이 켜져 보관 중인 음식물의 종류와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4시간 자동정온' 기능은 냉장실 내부의 온도를 ±0.5도 이내로 유지시켜 냉장실의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한다. '도어쿨링+' 기능은 가장 위쪽에서 나오는 강력한 냉기로 냉장고 도어까지 고르게 냉각시킨다.

해당 제품은 주기적으로 자외선(UV) LED를 사용해 물이 나오는 부분의 세균을 최대 99.99% 없앤다.

LG전자 H&A사업본부 키친어플라이언스사업부장 이현욱 전무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방 공간 활용도와 편의성을 높인 냉장고 신제품을 앞세워 새로운 고객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선욱기자